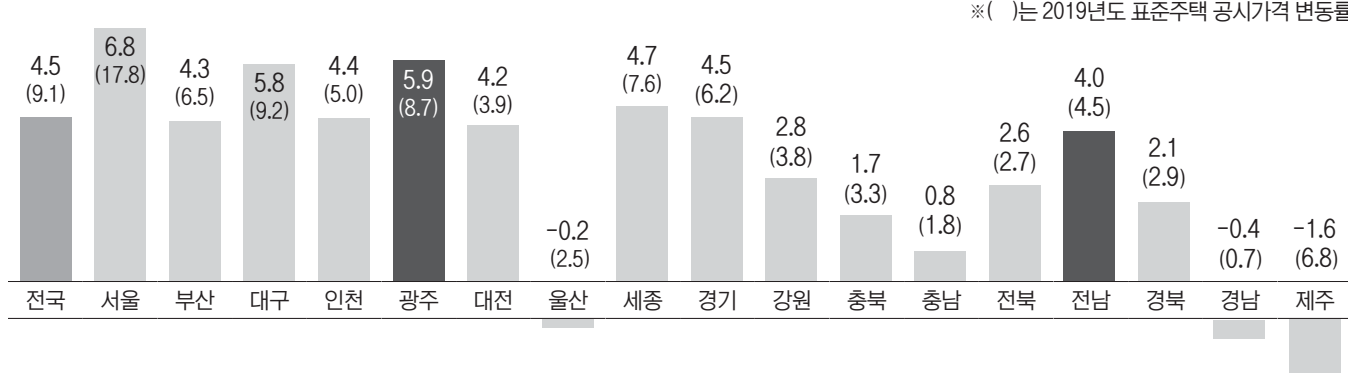


# 광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지역 최고 상승

재개발 여파...전년비 5.9% ↑  
서울 6.8%·전남 4.0% 상승  
제주 1.6%, 경남·울산 하락

■ 2019년 대비 2020년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재개발 열풍의 여파로 단독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치솟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19일 국토교통부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경취(안)'에 따르면 내년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대비 5.9% 상승했다. 5개 자치구 모두 광주 평균 변동률과 비슷하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73%, 2019년 8.71% 등 꾸준히 올라 3년 사이에 20% 이상 상승했다. 전남은 지난 2018년 3.50%, 2019년 4.50%, 2020년 4.0% 올랐다.

해보다 4.5%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6.8%), 광주(5.9%), 대구(5.8%), 세종(4.7%) 등이 전국평균 변동률(4.5%)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오히려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동산(주택, 토지) 공시가격 현실

화율을 높이고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 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낮은 가격의 표준지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으로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00여만 채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22만채를 표본 추출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다. 이 표준단독주택을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조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96.56 (+1.80)
- ↑ 금리(국고채 3년) 1.38 (+0.03)
- ↓ 코스닥 647.85 (-1.10)
- ↓ 환율(USD) 1165.60 (-3.20)

##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국내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박재홍(64) ㈜영무건설 회장이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광주지역 증경 주택건설업체인 영무건설을 경영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국 대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2대 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박 신임 회장은 112표를 얻어 70표에 그친 심광일(66·석미건설 회장) 현 회장을 누르고 12대 회장에 선출됐다.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지방에서 경선으로 회장에 당선된 것은 박 회장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이날 당선과 동시에 임기 3년을 시작했다. 박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우리 협회의 진정한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주택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사들이자



랑스러워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동안 사회 전반에 상상과 균형 발전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우리 협회도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면 지방 출신 중앙회장이 탄생할 때도 됐다"면서 "진정한 소통과 화합, 상생의 리더십으로 전국 7600여 회원사,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하나되는 활기찬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영광 출생으로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영무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주택건설협회 중앙회 감사와 광주·전남도회장을 역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송가인 효과' ...전국서 보해 잎새주 찾는다

팬클럽 등 판매처 문의 잇따라  
명절 앞두고 한정판 출시 고려

"대구에서 가인님 팬클럽 모임을 열고 싶는데 잎새주와 함께 할까요. 어디서 잎새주 살 수 있습니까?"

최근 보해양조 목표 분사 고객상담실에는 '잎새주' 판매처를 묻는 전화가 수도권·부산·대구 등지에서 하루 10건 이상 걸려 오고 있다. 잎새주 '새 얼굴'이 된 송가인의 인기 덕분이다.

19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가수 송가인을 모델로 선정한 9일 이후 열흘 동안 잎새주 판매처를 묻는 전화가 100건 이상 잇따랐다.

송가인 모델 발탁 소식이 알려진 뒤 광주·전남 외 지역에서도 '잎새주'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해 측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송가인 잎새주' 한정판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연말 모임이 잦아지면서 송가인이 실린 잎새주 포스터는 없어서 못 구하는 인기 아이템이 됐다. 보해 측은 송가인을 내건 판촉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낼 방침이다. 보해 주요 제품들이 광주·전남지역에 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다른 지역민들이 잎새주 판매처를 묻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보해 측 설명이다.

지난 12일 송가인의 고향인 진도에서 진행된 판촉행사에서는 송가인 팬클럽 회원들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며 잎새주 알리기에 나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스마트공장 200개 구축 내년 예산 220억원 65% 증가

내년 광주지역에 스마트공장 200여개가 구축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 광주지역에 스마트공장 200여개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 22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광주지역에는 133억 4000만원(중기부 128억4000만원·광주시 5억원)을 들여 스마트공장 94개가 구축됐고, 연말까지 100여개가 구축될 예정이다.

내년 지원 예산은 총 220억원(중기부 200억·광주시 2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가량 늘어나고 추진 계획도 200여개로 확대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중진공 지역본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1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공장 사업 주관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전남중기청은 내년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제조업 실태조사를 통한 업종별(산업별)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종별 스마트공장 표준화 모델을 확산시키고, 산·학·관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과 스마트공장 AS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손안의 금융' 광주은행, 모바일뱅킹 새단장

이체한도 높이고 편의성 향상

오픈뱅킹 서비스가 18개 모든 은행에 전면 시행되면서 광주은행이 모바일뱅킹을 대폭 개선했다.

19일 광주은행은 오픈뱅킹을 이용할 때 다른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한번에 조회하며 10개 계좌를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통합조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은 계좌설정·마이메뉴·프로필

설정·마이시스템프·자산 목표설정 등 고객 개인화 기능이 확대됐다. 기존 1일·1회 100만원이었던 간편이체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렸고 이체거래 때 보안매체·인증서 인증을 생략했다. 상품물에서는 장바구니 기능을 추가해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뱅킹·모바일웹뱅킹의 2500여 페이지 분량을 음성 안내한다.

정찬암 광주은행 부행장은 "개인화 기능을 높이고,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새얼굴

### "성과 창출로 지역사회 기여 노력"

임낙송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한전 광주전남본부 업무 역량이 전력 공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취임한 임낙송(59)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전기요금체제 개편,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한국전력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들을 지역민에 널리 알리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임 본부장은 남성

고, 전북대 경제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한전에 입사한 후 에너지신사업단 사업전략실장, 김제지사장, 영업계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